

# 地域間 어머니-子女사이의 意思疏通과 靑少年 問題行動에 대한 關聯變因 分析

윤준상\* · 김주분\* · 김진화\*\*

\*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서울대학교 강사

## An Analysis of the Related Variables on the Mother-Children Interaction and Juvenile Deliquent Behavior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Joon-Sang Yoon\*, Ju-Bun Kim\* and Jin-Hwa Kim\*\*

\* Gong Ju National University

\*\* Instruct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the related variables on the Mother-Children Interaction and Juvenile Deliquent Behavior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Juvenile Deliquent Behavior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between male and female were the significant Gap statistically.
2. Juvenile Deliquent Behaviors were the significant Gap statistically in mother's educational level and home living level.
3. The dysfunctional communication of the Mother-Children was resulted in the Juvenile Deliquent Behaviors.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의 고도로 과학화된 산업사회는 우리사회가 문명의 편리를 누리는 반면, 물질숭상과 이기주의가 팽배되고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새로운 병폐적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이중구조속에서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및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행동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 비행은 최근 계속 양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그 연령수준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동기면에서는 우발적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청소년백서, 1993) 청소년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은 아동기와 성년기의 중간에 놓여 있는 과도기로 인간의 한 평생 중에서 매우 중요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미래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며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청소년이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더할 수 없이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의 비행이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관해서는 사회구조적 측면과 개인의 심리, 생물학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고, 또한 청소년을 둘러싼 학교, 사회, 가정 등의 영향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일차적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적 요인이 청소년

년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최충욱, 1993). 이미 한 개인의 성격과 행동양식의 형성과정에 부모-자녀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근거는 Freud 이후 Sullivan, Erikson 등의 심리학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개인의 정신병리와 문제행위를 논함에 있어서도 가족관계나 가족기능을 이해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Satir, 1971).

부모-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로 인간의 성장발달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이다. 특히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급격한 신체적·정신적 성숙과 함께 부모의 의존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로 부모-자녀간의 대화는 어렵고 세대간의 불일치가 심하여 부모나 자녀가 서로에 대한 기대와 가치, 역할과 책임의 새로운 이해와 재조정이 요구되므로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일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저하로 이중적 의사전달을 하거나 자녀의 가치를 무시하는 부정적 의사전달을 하게 될 때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결여된 역기능적 인간으로 성장하며 또다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고 한다(김윤희, 199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훌륭한 인적자원을 육성한다는 매우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자녀관계중에서도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로서 어머니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 최초로 접촉하는 사람으로 자녀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인성의 형태를 결정한다. 또한 자녀의 성장발달과 사회화 과정에서 올바른 생활태도, 신념, 가치관을 무의식적으로 자녀간의 대화 가운데 도입함으로써 은연중에 이들을 흡수하도록 하는 무의식적 교육담당자이다(유영주, 1993). 오늘날은 여성의 고등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도 경제적 수입과 대외활동을 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가족간의 융합이나 자녀교육은 여전히 어머니의 역할로 남겨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자녀와 어머니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하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비행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Alexander, 1973; Thomas, 1977; 정명희, 1987; 김경화, 1989; 민하영, 1991) 지적하고 있으나 국내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도시, 농촌간에 고등학생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있으나(정인채, 1984), 중학생의 문제행동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 농촌의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그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어머니 자녀관계의 바람직한 질적 향상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필요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가족의 체계론적 입장에 근거하여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척도로 의사소통 중심의 가족치료가인 Virginia Satir의 이론적 모델에 입각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행동 유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목적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성별, 지역(도시, 농

촌)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사회경제적 변인(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어머니-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용어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 1) 기능적 의사소통

어머니가 자녀와 분명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관계에서 긍정적인 피이드백을 주고 받으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2) 역기능적 의사소통

어머니가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며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 3) 문제행동

본 연구에 있어서의 문제행동이란 특정 형사상의 범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학생으로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규범을 위반한 행동으로서 도덕적 문제행동, 물질적 문제행동, 공격적 문제행동, 음성적 문제행동의 4가지로 유형화 하였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1) 조사 대상자와 표본수집이 서울시내 1개 중학교와 충남의 2개 중학교의 3학년생을 대상으로 국한시켰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2)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조사하기 위해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제한점이 있다. 즉 어머니가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자녀의 입장에서만 평가하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입장을 정당화 시킬 수 없다.

## II. 선행연구 고찰

청소년 비행은 가족간의 의사소통 측면에서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비행 청소년의 가족 안에는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 내재함을 알 수 있다.

Satir는 의사소통은 경제적 사회적 계층이 어떠한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는 인간의 정서적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으며 특히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관심을 두고 기술을 발전시켰다. Satir의 견해중 성숙개념과 자기존중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사람은 자기존중의 감정없이 성숙할 수 없으며 가족체계내의 의사소통은 가족체계내에서 개인들의 자기존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Satir는 의사소통을 정보를 주고 받는 과정을 중요시 하였고 주고 받는 메시지의 일치성과 불일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송성자, 1985, 재인용). 의사소통은 기능적인 것과 역기능적인 것으로 구분되어 진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의 경우에는 상호분명한 의사소통선이 성립되고 유지되며 상호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피이드백을 주고 받으며 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킨다. 반면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지식, 기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Walsh, 1983). 그리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사람들이 거부, 또는 심판받는다고 느끼거나 약점이 노출될 때, 개인의 자기존중 감정이 흔들리고 약해졌을 때 발생한다.

Satir(1983)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원인을

“자부심의 결여”라고 보고 있으며 이것을 “Pot level”이 낮다고 표현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머리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추측하고 가정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오해받기 쉽고 계획된 목적이나 결과에 도달하기 힘들다고 했다.

Satir(1972)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다음과 같이 회유(Placating), 비난(Blaming), 평가(Computing), 혼란(Distracting)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Alexander 등(1973)은 비행 청소년의 가족은 명확하고 의미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간 강화능력이 부족하며, 가족간 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고 대화주제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지지적인 의사소통 보다 방어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지적하면서 청소년 비행은 가족 구성원의 혼동된 의사소통의 부산물로 보았다.

Jacob(1975)은 비행 청소년 가족과 정상 청소년 가족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행 청소년 가족의 경우 자녀들에게 모순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고 의사소통의 많은 부분을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타협하기를 싫어 하였다는 부정적 감정표현의 의사소통을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Bandura 와 Walters(1976)도 비행 청소년의 부모가 일반 청소년의 부모에 비해 부모에 대한 의존감정의 표현을 제한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하였으며, Hetherington과 Martin(1979)은 신경증적 비행 청소년가족은 모에 의해 주도되고 자녀들은 소극적이고 부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향이었고, 공격적인 비행 청소년가족은 부에 의해 주도되고 자녀들은 대화에 적극적이긴 하나 타협을 싫어한다고 했으며, 사회병리적 비행 청소년가족은 부에 의해 주도되고 의사소통 양식이 혼란되어 있었으며 의사결정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했다.

김경화(1989)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독선적이고 무조건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며 평가적이고 모순된 특성을 지닌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

하였고, 김윤희(1990)는 부부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연구에서 자녀의 비행은 역기능적인 부모의 역할수행 및 부모-자녀간의 상호관계, 가족기능에 의해 희생된 속죄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선도와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애정적 결속을 융통성 있게 조절함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명희(1987)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일수록 청소년 문제행동이 적음을 보여 주었지만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일수록 청소년 문제행동이 많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편, 민하영(1991)도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연구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비행은 부모와의 거리감 있는 의사소통으로 인한 상호이해 부족 및 통제력 약화,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지도의 기회부족으로부터 형성되므로 가족원간의 심리적인 유대강화 및 청소년기 자녀와의 새로운 역할관계가 모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부모의 효율성 있는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및 의사소통 기술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특징 지어지는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1개 중학교와 충남 예산군에 소재한 2개 중학교의 3학년 남, 녀 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여 384명에게 설문지를 배부 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는 368매로 약 95.8%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상의 368매중 부실한 응답을 보인 26매를 제외한 나머지 342매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사용 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성별 및 지역 분포수

지역 성별	도 시		농 촌		전 체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빈 도	백분율
남	89	51.1	82	48.8	171	50
여	85	48.9	86	51.2	171	50
전 체	174	100	168	100	342	10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에 관한 문항과 어머니-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중학생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측정도구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Satir의 이론중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유형을 주축으로 한국적 상황을 감안 종합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1)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회유형의 의사소통

- ① 자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며 말한다.
- ② 자녀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한다.
- ③ 자녀에게 자신의 주장대로 결정내리지 못한다.
- ④ 자녀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한다.
- ⑤ 무조건 참고 견디려고 한다.
- ⑥ 일이 잘못되면 어머니인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2)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비난형의 의사소통

- ① 어머니의 잘못도 자녀의 탓으로 돌린다.
- ② 자녀의 말을 무시한다.

- ③ 자녀에게 맹목적인 복종과 충성을 요구한다.

- ④ 화를 잘 낸다.
- ⑤ 칭찬보다 야단을 잘 친다.
- ⑥ 명령적이고 지시적이다.

(3)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평가형의 의사소통

- ① 흠을 잘 꼬집는다.
- ② 불평불만이 많다.
- ③ 너그럽지 못하다.
- ④ 자녀의 좋은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 ⑥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4)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혼란형의 의사소통

- 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 ② 일관성이 없다.
- ③ 두리번거리거나 다른 행동을 하면서 말한다.
- ④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한다.
- ⑤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한다.
- ⑥ 화제의 주제를 자주 바꾼다.

이상과 같이 자녀에게 가지는 어머니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회유형,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 6문항씩 총 24개 항목을 제시하여 Likert 척도에 의하여 점수를 합산하도록 하였다. Likert 척도에 의한 점수 배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런편이다 4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이다.

위의 모든 항목들에 대하여 중학생 자녀로 하여금 어머니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응답하도록 했다.

### 2) 문제행동 측정도구

문제행동 척도는 공격적 문제행동, 도덕적 문제행동, 물질적 문제행동, 음성적 문제행동의 네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 (1) 도덕적 문제행동

- ① 규정 위반                      ② 등록금, 책값 전용
- ③ 거짓말, 무단결석            ④ 가출

#### (2) 물질적 문제행동

- ① 절도 2문항                    ② 금품 갈취

#### (3) 공격적 문제행동

- ① 욕설                              ② 기물파괴
- ③ 폭행                              ④ 패싸움
- ⑤ 자해행위, 문신

#### (4) 음성적 문제행동

- ① 흡연
- ② 본드, 신나, 부탄가스 흡입
- ③ 유해업소 출입
- ④ 불순 이성 교제
- ⑤ 음란서적, 비디오 관람            ⑥ 음주

이 질문지는 도덕적 문제행동 4문항, 물질적 문제행동 3문항, 공격적 문제행동 5문항, 음성적 문제행동 6문항으로 모두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구성 방식은 많다 = 3점, 가끔 있다 = 2점, 없다 = 1점으로 가중치를 주었다. 따라서 문제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발현율이 높음을 나타내며, 반면 문제행동 점수가 낮을수록 문제행동 발현율은 낮음을 나타낸다.

변수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남, 여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1994년 3월 3일에서 3월 5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정 보완 하였고 관련 전문가들이 검토한 안면 타당도 검증을 거

쳐 최종적으로 확정 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내용을 가지고 조사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alpha$  검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 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척도의 네 가지 유형에 관한 문항에 대한 알파값이 .73으로 나타났고, 문제행동의 네 가지 유형에 관한 문항의 알파값은 .88로 나타나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산출 되었다.

### 3. 자료의 수집 및 처리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자료의 수집기간은 1994년 3월 21일부터 26일까지였다.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질문지를 통해 예비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질문지로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 학교의 학급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검사실시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SPSS/PC\*)에 의하여 전산처리 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을 산출 하였고 t-test,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 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사용 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차는 0.5 수준으로 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 녀 각각 50%의 비율로 도시 지역은 남학생이 51.1%, 여학생이 48.9%, 농촌 지역은 남학생이 48.8%, 여학생이 51.2% 였다.

어머니의 연령은 40대가 77.5%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17.8%, 50대 이상이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도시, 농촌 모두 40대, 30대, 50대 이상의 순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40.6%로 가장 높았으나 지역별로 보면 농촌은 39.3%로 나타

난 국졸이 가장 높고 다음이 중졸 32.7%로 교육 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도시는 고졸이 56.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이 대졸이상이 35%를 보여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매우 높은 편이었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있어서는 취업을 하지 않은 어머니가 68.1%, 취업을 한 어머니는 31.9%로 취업을 하지 않은 어머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도시 지역은 상

업이 36.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고 다음이 회사원 27.6%, 교사 19.1%의 순이었으나 농촌 지역은 공장 생산직이 32.3%, 상업이 25.8%, 일일 노동자 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생활수준은 조사 대상자의 85.4%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부유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6%, “가난하다”가 5.0%로 응답하여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이 중류층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도 시	농 촌	전 체
		빈 도 (%)	빈 도 (%)	빈 도 (%)
성 별	남	89(51.1)	82(48.8)	171(50 )
	여	85(48.9)	86(51.2)	171(50 )
어머니연령	30~39세	31(17.8)	30(17.9)	61(17.8)
	40~49세	142(81.6)	123(73.2)	265(77.5)
	50세 이상	1( 0.6)	15( 8.9)	16( 4.7)
어머니학력	무 학	0( 0 )	4( 2.4)	4( 1.2)
	국 졸	3( 1.7)	66(39.3)	69(20.2)
	중 졸	12( 6.9)	55(32.7)	67(19.6)
	고 졸	98(56.3)	41(24.4)	139(40.6)
	대졸이상(전문대포함)	61(35.1)	2( 1.2)	63(18.4)
생활수준	매우 가난하다	1( 0.6)	3( 1.8)	4( 1.2)
	가 난 하 다	5( 2.9)	12( 7.1)	17( 5.0)
	보 통 이 다	154(88.5)	138(82.1)	292(85.4)
	부 유 하 다	12( 6.9)	14( 8.3)	26( 7.6)
	매우 부유하다	2( 1.1)	1( 0.7)	3( 0.8)
어머니취업	유	47(27.0)	62(36.9)	109(31.9)
	무	127(73.0)	106(63.1)	233(68.1)
어머니직업	회 사 원	13(27.6)	8(12.9)	21(19.2)
	일 일 노 동 자	0( 0 )	10(16.1)	10( 9.2)
	공 무 원	2( 4.3)	0( 0 )	2( 1.8)
	교 사	9(19.1)	0( 0 )	9( 8.3)
	상 업	17(36.2)	16(25.8)	33(30.3)
	공 장 생 산 직	2( 4.3)	20(32.3)	22(20.2)
	기 타	4( 8.5)	8(12.9)	12(11.0)
합 계		174(100)	168(100)	342(100)

2. 청소년의 성별, 지역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에 대한 검증

(1) 성별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 정도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전체적인 문제행동 정도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 문제행동에 있어서 평균점수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행동 전체에 있어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 주고 있다.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 문제행동은  $p < .01$  수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음이 의미있게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정도

(n=342)

문제행동 유형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값
도덕적 문제행동	남 (171)	4.96	1.27	1.21 (N.S.)
	여 (171)	4.81	.95	
물질적 문제행동	남 (171)	3.64	1.25	4.17**
	여 (171)	3.20	.53	
공격적 문제행동	남 (171)	6.68	1.54	3.90**
	여 (171)	6.11	1.11	
음성적 문제행동	남 (171)	8.07	2.18	5.19**
	여 (171)	7.06	1.30	
문제행동 전체	남 (171)	23.35	5.18	4.73**
	여 (171)	21.19	2.94	

\*\*  $p < .01$ .

<표 4> 지역별 문제행동의 정도

(n=342)

문제행동 유형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t 값
도덕적 문제행동	도시 (174)	4.79	1.26	1.66 (N.S.)
	농촌 (168)	4.99	.95	
물질적 문제행동	도시 (174)	3.45	1.12	.63 (N.S.)
	농촌 (168)	3.39	.82	
공격적 문제행동	도시 (174)	6.31	1.54	1.16 (N.S.)
	농촌 (168)	6.48	1.18	
음성적 문제행동	도시 (174)	7.56	2.12	.10 (N.S.)
	농촌 (168)	7.58	1.55	
문제행동 전체	도시 (174)	22.11	5.05	.69 (N.S.)
	농촌 (168)	22.43	3.46	



그러나 도덕적 문제행동은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지역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 정도

지역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면 지역에 따른 문제행동 정도는 도덕적,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 문제행동과 전체 문제행동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은 도시, 농촌간의

3. 사회경제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에 대한 검증

(1)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 정도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문제행동의 변량 분석

(n=342)

문제행동유형	학 력	빈 도	평 균	표 준 편 차	f 값
도 덕 적 문 제 행 동	무 학	4	6.00	1.41	1.39 (N.S.)
	국 졸	69	4.99	.93	
	중 졸	67	4.94	.90	
	고 졸	139	4.81	1.13	
	대졸이상(전문대 포함)	63	4.83	1.43	
물 질 적 문 제 행 동	무 학	4	4.00	1.15	.58 (N.S.)
	국 졸	69	3.42	.79	
	중 졸	67	3.31	.89	
	고 졸	139	3.45	1.09	
	대졸이상(전문대 포함)	63	3.43	1.03	
공 격 적 문 제 행 동	무 학	4	7.50	2.08	1.33 (N.S.)
	국 졸	69	6.36	1.09	
	중 졸	67	6.57	1.16	
	고 졸	139	6.40	1.47	
	대졸이상(전문대 포함)	63	6.17	1.56	
음 성 적 문 제 행 동	무 학	4	9.00	3.37	1.03 (N.S.)
	국 졸	69	7.33	1.15	
	중 졸	67	7.49	1.45	
	고 졸	139	7.68	2.14	
	대졸이상(전문대 포함)	63	7.56	2.09	
문 제 행 동 전 체	무 학	4	26.50	6.66	1.05 (N.S.)
	국 졸	69	22.10	2.86	
	중 졸	67	22.31	3.23	
	고 졸	139	22.34	4.82	
	대졸이상(전문대 포함)	63	21.98	5.32	

〈표 5〉에 의하면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른 문제행동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도덕적,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 문제행동과 문제행동 전체에 어머니의 학력이 무학일때 문제행동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아주 낮을수록 청소년의 전반적인 문제행동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여주었고, 고졸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에서는 물질적, 음성적 문제행동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도덕적,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 문제행동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2)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 정도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면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도덕적,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 문제행동과 전체 문제행동은 어머니가 취업을 한 경우의 평균점수가 비취업 어머니의 평균점수보다 높게 나타나 취업을 하지 않은 어머니의 자녀보다 취업을 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문제행동 정도가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나,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도덕적,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 문제행동 정도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표 6〉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른 문제행동의 정도

(n=342)

문제행동 유형	취업 별 (n)	평균	표준편차	t 값
도덕적 문제행동	유 (109)	5.04	1.19	1.71 (N.S.)
	무 (233)	4.82	1.08	
물질적 문제행동	유 (109)	3.57	1.15	1.91 (N.S.)
	무 (233)	3.35	.89	
공격적 문제행동	유 (109)	6.56	1.60	1.52 (N.S.)
	무 (233)	6.32	1.25	
음성적 문제행동	유 (109)	7.72	2.05	1.01 (N.S.)
	무 (233)	7.50	1.76	
문제행동 전체	유 (109)	22.88	5.07	1.79 (N.S.)
	무 (233)	21.98	3.93	

(3)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 정도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생활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도덕적,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 문제행동의 평균점수가 문제행동의 각 유형별로 매우 부유한

생활수준에서 문제행동 평균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가난한 생활수준이었으며, 보통의 생활수준에서는 문제행동 정도가 낮은 경향성을 보여 주었다.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도덕적,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 문제행동 정도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생활수준에 따른 문제행동의 정도

(n=342)

문제행동유형	생활수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값
도덕적 문제행동	매우 가난하다	4	5.00	.82	1.06 (N.S.)
	가난하다	17	5.23	1.35	
	보통이다	292	4.84	1.07	
	부유하다	26	5.15	1.52	
	매우 부유하다	3	5.33	1.15	
물질적 문제행동	매우 가난하다	4	3.00	.00	1.86 (N.S.)
	가난하다	17	3.71	1.10	
	보통이다	292	3.41	.99	
	부유하다	26	3.31	.68	
	매우 부유하다	3	4.67	1.53	
공격적 문제행동	매우 가난하다	4	6.50	.58	1.04 (N.S.)
	가난하다	17	6.76	1.60	
	보통이다	292	6.37	1.39	
	부유하다	26	6.27	.96	
	매우 부유하다	3	7.76	2.08	
음성적 문제행동	매우 가난하다	4	7.50	1.73	2.07 (N.S.)
	가난하다	17	8.18	2.13	
	보통이다	292	7.48	1.84	
	부유하다	26	7.85	1.76	
	매우 부유하다	3	10.00	1.00	
문제행동 전체	매우 가난하다	4	22.00	2.16	1.92 (N.S.)
	가난하다	17	23.88	4.69	
	보통이다	292	22.10	4.33	
	부유하다	26	22.58	4.23	
	매우 부유하다	3	27.67	2.52	

4. 어머니-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의한 청소년 문제행동의 영향력 검증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어느정도 설명 및 예측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은 어머니-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각각의 문제행동 특성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한 것으로, 〈표 8〉의 분석결과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각 유형과 문제행동 특

성과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각 유형별 문제행동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회유형 의사소통과 문제행동 정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회유형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정도와의 관계는 〈표 8〉의 결과에서 보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해 중요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전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도덕적,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 문제 행동에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게 나타났다. 전체문제 행동의 종속변인에 회귀된 상관관계를 보면  $r=.021$ 로서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회유형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영향력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8〉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문제행동간의 단순회귀 분석

(n=342)

문제행동 유형		도 덕 적 문 제 행 동	물 리 적 문 제 행 동	공 격 적 문 제 행 동	음 성 적 문 제 행 동
어머니의 회유형	b	.011	.003	.008	.003
	$\beta$	.035	.012	.022	.006
	R <sup>2</sup>	.001	.000	.000	.000
	t	.638	.215	.400	.106
		(N.S.)	(N.S.)	(N.S.)	(N.S.)
어머니의 비난형	b	.060	.033	.050	.071
	$\beta$	.255	.158	.172	.183
	R <sup>2</sup>	.065	.025	.030	.033
	t	4.869**	2.950**	3.220**	3.429**
어머니의 평가형	b	.067	.037	.058	.079
	$\beta$	.255	.162	.180	.181
	R <sup>2</sup>	.065	.026	.032	.033
	t	4.853**	3.033**	3.375**	3.399**
어머니의 혼란형	b	.077	.036	.062	.083
	$\beta$	.282	.150	.185	.185
	R <sup>2</sup>	.080	.022	.034	.034
	t	5.422**	2.797**	3.480**	3.462**

\*\* p<.01.

(2) 비난형 의사소통과 문제행동 정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비난형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정도와의 관계는 〈표 8〉의 결과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비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기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비난형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도덕적 문제행동( $\beta=.255$ )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였고 그 다음이 음성적 문제행동( $\beta=.183$ ), 공격적 문제행동( $\beta=.172$ ), 물질적 문제행동( $\beta=.158$ )순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 문제

행동은  $p<.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비난형 의사소통과 유의적인 상관관을 보이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예측도를 보면 도덕적 문제행동이 최고 7% 정도 설명력을 보였고, 다음의 음성적 문제행동이 3% 순으로 설명력은 낮은 편이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비난형 의사소통은 자녀의 도덕적,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 문제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고 직접적인 자녀 문제 행동에 원인이 되며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냈다.

(3) 평가형 의사소통과 문제행동 정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평가형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정도와의 관계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평가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기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8>에 의하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평가형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도덕적 문제행동( $\beta = .255$ )에서 비교적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음성적 문제행동( $\beta = .181$ ), 공격적 문제행동( $\beta = .180$ ), 물질적 문제행동( $\beta = .162$ )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 문제행동은 모두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평가형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예측도를 보면 도덕적 문제행동에서 최고 7% 정도 설명하고 있으며 음성적, 공격적 문제행동은 3% 정도로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평가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평가형 의사소통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4) 혼란형 의사소통과 문제행동 정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혼란형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 정도와의 관계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혼란형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기여하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8>에 의하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혼란형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도덕적 문제행동( $\beta = .282$ )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물질적 문제행동( $\beta = .150$ )에서는 가장 낮은 영향력을 보였다. 도덕적,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 문제행동은 각각  $p < .0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혼란형 의사소통과 유의적인 상관을 보이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예측도를 보면 도덕적 문제행동에서 최고 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고 공격적, 음성적 문제행동은 3%의 낮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중 혼란형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시, 농촌지역의 중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가족의 체계론적 입장에 근거하여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로서 성별, 지역(도시, 농촌)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를 비교하고, 사회경제적 변인(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 어머니-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데 있었다.

조사대상은 도시지역으로 서울시내 소재 중학교 3학년 남, 여 학생 174명, 농촌지역으로는 충남 예산군에 소재 한 중학교 3학년 남, 여 학생 168명의 총 342명이었다.

조사도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변인은 전문가들이 검토한 안면타당도를 거쳐 독립변인은 개인의 일반적 특성변인(성별, 지역, 어머니 연령, 어머니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유무, 어머니 직업, 가정의 생활수준 등의 7개 문항)과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변인(회유형, 비난형, 평가형, 혼란형 의사소통 각 6문항씩 24개 문항)이었고 종속변인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변인(도덕적 문제행동 4개 문항, 물질적 문제행동

3개 문항, 공격적 문제행동 5개 문항, 음성적 문제행동 6개 문항 등 총 18개 문항)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인의 어머니-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변인에 관한 문항 신뢰도 계수는 .73이었고 종속변인인 문제행동에 대한 문항은 .88로 신뢰도 계수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자료의 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일원변량 분석(One-way Anova),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등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문제행동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전반적인 문제행동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제행동 특성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물질적, 공격적, 음성적 문제행동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물파괴, 패싸움, 흡기소지 등의 반사회적 공격행위 등에서 더 높은 발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집단비행 및 외향적 이탈행동에 더 많이 관련되기 쉽고 환경적 측면이나 대인관계 측면에서 여학생보다 더 쉽게 영향을 받아서 적절한 상황만 주어지면 곧바로 이러한 행동적 문제행동을 저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음성적 문제행동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 흡연 등의 성인모방 지향적인 문제행동 차원에서 더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때문으로 추측된다.

지역(도시, 농촌)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 정도는 전반적인 문제행동 수준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문제행동 특성에도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의 마스크 시대로의 변화로 우리의 사회가 일원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도시, 농촌간의 문화적 차이가 좁혀져 청소년의 행동양식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 변인인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 정도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 취업유무에 있어서 문제행동 부분적으로 즉 도덕적, 물질적 문제행동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사회 진출현상이 청소년들에게 거짓말, 가출, 규정위반과 같은 도덕적 문제행동, 그리고 절도, 금품갈취 등과 같은 물질적 문제행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문제행동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중 혼란형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으며, 역시 문제행동 특성에도 다른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보다 문제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문제행동의 각 특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변인은 평가형, 비난형 의사소통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 특성중 특히 무단결석, 거짓말, 가출 등과 같은 도덕적 문제행동은 문제행동의 다른 하위유형보다 회유형을 제외한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기 자녀가 행동적 문제행동인 공격적 문제행동이나 성인 모방지향적인 음성적 문제행동 등 보다 자기 내적 적응상의 문제인 인성적 문제행동 차원으로, 부모와의 부정적인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덕적 문제행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비롯되는 가정의 불만이나, 가정거부적 이탈행위의 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회유형 의사소통은 전체 문제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역시 문제행동 특성에도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회유형 의사소통은 청소년

년 문제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고 아무 기여도 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어머니-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분석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그들의 문제행동을 발생하게 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모두가 청소년 문제행동의 원인은 아니었다. 즉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회유형 의사소통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뿐 아니라 거의 상관관계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혼란형, 평가형, 비난형 의사소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기여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인 혼란형, 평가형, 비난형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2. 제 언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청소년 문제행동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혼란되고 모순되며 평가하고 또는 지나치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는 부정적인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바람직한 청소년의 인성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어머니-자녀간의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긍정적인 의사소

통을 통해 어머니 자녀간의 공통적인 이해가 전제되는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에게 가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야기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상담할 수 있는 Program의 개발과 더불어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셋째, 최근 가족치료에서는 가족원과의 의사소통을 중요시 하여 가족 및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의사소통에 두고 그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청소년의 비행, 부적응 행동, 이상심리 및 성격적인 문제행동 등에 대한 의사소통 가족중심 중재방법의 적용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통해 타 치료방법이나 비치료적 중재방법에 비해 그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도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지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비행 중재를 위한 의사소통 가족치료의 필요성을 지지해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의사소통 가족치료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더욱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상 선정에 있어 일반의 정상 청소년 집단을 무작위 표집했기 때문에 결과해석에 있어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중학생 연령시기인 비행 청소년 집단과 정상청소년 집단을 도시, 농촌별로 비교 연구하므로써 본 연구결과의 해석상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었으면 한다.

## VI. 참 고 문 헌

1. 김경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2. 김윤희, "부부관계·부모-자녀의사소통·가족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3. 문화체육부, 「청소년 백서」, 서울:법신사, 1993.

4. 민하영,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5. 송성자,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6. 유영주, 『신가족관계학』, 서울:교문사, 1993.
7. 정명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연구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성심여자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8. 정인채, "비행 청소년에 있어 가정의 심리적 과정과 부모에 대한 태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9. 최충옥, "가정과 청소년문제", 『청소년문제론』,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도서출판 서원, 1993.
10. Alexander, J. F., "Defensive and supportive communication in normal and deviant families", J. of Consulting and Psychology vol. 40, 1973, pp. 223-231.
11. Bandura, A. & Walters, R. H., Adolescent aggression: A Study of the influences of child training practices & Family interrelationships, New York: Ronald Press., 1976.
12. Hetherington, E. M., Stovvie, R. J., & Ridberg, E. H., "Patterns of family interaction and child-rearing attitudes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971, p. 78, pp. 160-176.,
13. Hetherington, E. M. & Martin, B., "Family interaction" in H. C., Quay & J. S. Framo, J. (eds), Intensive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1979, pp. 343-363. Werry(eds.), Psyc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2nd ed.), New York: McGraw Hill.
14. Jacob, T., "Family interaction in disturbed & normal families: A Methodological & Substan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975, pp. 33-65.
15. Satir, V. Conjoint Family Therapy(2nd ed), Palo Alto: Science & Behavior Books, 1967, p.96.
16. Satir, V. "The Family as a Treatment Unit" Changing Families, N. Y.: Grune Stratton, 1971.
17. Satir, V. People Making,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1972, pp. 55-79.
18. Satir, V.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1983, P. 136.
19. Satir, V. & M. Baldwin, Satir step by Step,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Behavior Books, Inc., 1983.
20. Thomas, E.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N. Y.: The Free Press, 1977.
21. Walsh, Froma., "Family Therapy A Systematic Orientation", Aron Rosenblatt and Diana Waldfogel, eds., Handbook of clinical Social Work,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3, p. 18. 476.